

코아로직, 선과 모바일 자바 기술분야 제휴

코아로직(대표이사 황기수 www.corelogic.co.kr)은 모바일 자바 기술 활용을 위해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즈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코아로직은 선의 자바 ME를 멀티미디어프로세서(MAP)내에 통합, 단말기 제조사나 콘텐츠 개발자들이 별도의 운용체계(OS) 없이도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토탈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코아로직은 이번 제휴가 휴대폰용 MAP 중심 사업에서 DMB 단말기나, PMP, MP3 플레이어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용 제품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아로직 이석중 부사장은 “자바 기술 채용으로 다양한 SW들을 플랫폼 방식으로 친과 함께 공급, 단말기 제조사들은 OS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애플리케이션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엠텍비전, 90나노 공정 적용 멀티미디어 칩 개발

엠텍비전(대표이사 이성민 www.mtekvision.com)은 국내 펌리스 업계 최초로 저전력 90나노공정을 적용한 초소형 모바일 멀티미디어 플랫폼(MMP) 'MV800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90나노공정은 0.13μm 공정에 비해 한 웨이퍼 당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두 배 가량, 0.18μm 공정에 비해서는 4~5배 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원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같은 면적 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 작으면서도 뛰어난 성능의 칩을 개발할 수 있고, 전력소모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V8000은 90나노를 적용한 만큼 크기가 6×6mm로 작으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멀티미디어 칩이다. 이 제품은 멀티코덱(H.263, H.264, MPEG4)을 내장해 동영상은 물론 지상파·위성DMB, DVB-H 등 이동방송을 구현하며, 듀얼모드도 지원한다.

위즈네트, MCU(iMCUTM) 칩 개발

위즈네트(대표이사 이윤봉 www.wiznet.co.kr)는 국내 MCU 설계 전문 업체인 코아리버(대표이사 배중홍)와 파트너쉽을 맺고, 임베디드 인터넷 시스템 전용 인터넷 MCU(iMCUTM) 칩을 개발하여 위즈네트가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30여개국 50여 대리점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iMCUTM은 이미 전세계 1,000 곳 이상의 인터넷 디바이스 제조업체에 공급되고 있는 위즈네트의 하드웨어 TCP/IP 칩인 W3000 시리즈와 코아리버가 개발한 Flash 내장 8052 MCU 칩을 SiP(System in Package) 방식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한 칩이다. 첫 버전인 W7300은 9월말에 출시되며, W5000 시리즈(iEthernet™)를 활용한 W7500은 12월경 출시될 예정이다. 이 칩들은 보안장비, 산업제어장치, 출입통제기기, 카드리더기 등 OS-less 단말기에 최상의 솔루션이 된다. 위즈네트는 이미 이러한 응용 분야에 W3000 시리즈 칩과 8051 계열의 MCU 칩으로 구성된 Module을 공급해 왔다. \$25 대의 모듈이 적용되던 시장에 \$5 대의 칩이 공급됨으로써 고객에게 가격혁신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멀티미디어 처리 칩 설계 특허 취득

씨앤에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서승모 www.cnstec.com)는 휴대용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 칩 설계와 관련한 특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씨앤에스가 취득한 특허는 ‘범용프로세서와 비디오 코덱으로 구성된 시스템간의 디스플레이 데이터의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방법’이다. 멀티미디어 처리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각종 데이터를 표시할 때 별도의 부가 장치 없이 비디오 코덱 프로세서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씨앤에스 반도체연구소 이승호 상무는 “이 기술은 자사의 DMB 전용 멀티미디어 칩에 적용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베이스밴드 칩과 연결하면 성능이 향상된다”며 “휴대폰, PMP, PDA, 내비게이션 등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휴대용 기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렛스비전, DMB 수신기능 내장 멀티미디어 칩 개발

렛스비전 (대표이사 임채열 www.letsvision.com)은 DMB와 DVB-H 수신 기능을 내장한 모바일TV용 멀티미디어 칩 'MEDEO200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MEDEO2000은 JPEG, MPEG4, MP3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식을 지원하면서 DMB와 DVB-H 등 이동방송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업체들이 휴대폰이나 DMB 단말기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채열 사장은 “하나의 칩으로 휴대폰 기반 모든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최신 기능 휴대폰에 적용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부터 성능을 인정받아 내년 초부터는 월 20만개, 내년 말에는 월 100만개 가량을 생산하는 등 고속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이디오프스, 지그비 칩·SW 통합 인증 획득

레이디오프스(대표이사 왕성호 www.radiopulse.co.kr)는 지그비 단일 칩 'MG2400-F48'과 지그비 스택 소프트웨어 '지펄스'가 IEEE 802.15.4 인증과 지그비 국제 인증(ZCP) 등 국제 지그비 표준기구의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칩과 소프트웨어 통합인증을 획득한 것은 레이디오프스가 처음이며, 이번 인증 획득으로 레이디오프스의 지그비 제품이 시장에서 더욱 빨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이디오프스의 MG2400-F48은 지난 3월 지그비 단일 칩으로는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칩으로, 지그비와 IEEE 802.15.4 기반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지펄스는 지그비 표준을 지원하는 스택 소프트웨어로 레이디오프스가 개발해 2년여에 걸친 호환성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다. 왕성호 사장은 “현재 국내 많은 업체에서 자사의 칩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지그비 응용 제품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